

거래부진 속 일천궁, 향부자 값 폭등 기현상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 수백톤 암암리 시중유통

여름철 비수기를 맞은 한약 상가는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 매기 없고 물동량 부진한 가운데서도 일천궁과 향부자 등 일부 국산한약재의 경우 폭등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일천궁의 경우 "어느 특정 상인의 매점 매석에 의한 장난이 아니겠느냐"는 게 시장 사람들의 분석. 지난 5.6월부터 출하가 시작된 인진, 익모초 등 여러 가지 풀잎약재들의 생산량이 급감 시세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늘 그렇듯이 국산한약재 시세 상승은 일부 수입업자들의 수입한약재 반입을 위한 구실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도 시세폭등 품목인 천궁, 향부자를 비롯 황기 작약 등 수입약재가 수 백톤 규모로 이미 국내 반입돼 암암리에 시중유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 지난 6월 초 까지도 근당(600g기준) 2천 8백원 선이던 건강이 대폭 오름세.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3천5백원 선이다. 산지인 서산에서는 근당 2천9백원선. 지난해 생산량 대폭 감소로 재고물량이 적은 생강 값이 지난 6월 이후 한 짝(100kg)에 30만원 대까지 상한가를 형성함에 따라 산지에서 평균 근당 2천 4.5백원 선이던 건강 시세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중국산 생강 대량 반입 영향으로 건강 오름세는 다소 주춤한 상태.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산 생강은 한 짝에 보통 15만원 선에 도매거래 되나 소매가는 국산과 비슷하다고.

구기자 지난달부터 조금씩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서 구기자 시세가 다소 큰 폭으로 하향세. 6월 근당(600g기준) 1천 6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던 구기자가 7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근당 1만~1만2천원 선에 짝으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양 장에서 근당 1만원 선에 햇것 출하가 이뤄졌으며 다음 장에서는 9천~9천5백원 선 정도로 구기자 시세는 더 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 출하되고 있는 햇 구기자

소황기 통자와 절단품 시세차 거의 없어 국산과 비슷한 형태의 수입산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 국산과 섞여 유통되고 있기 때문

품질은 아직 여물지 못한 탓에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

당귀 7월 말 현재 서울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도매 시세는 근당(600g기준) 6천7백원(통), 7천5백원(절) 선이다. 지난달 시세인 6천5백원(통), 7천3백원(절) 보다 다소 오름세. 재고 물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듯. 시세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맥문동 다소 하락세다. 수입 맥문동이 일정량 반입된 데다 한여름 접어들면서 매기가 없는 관계로 시세가 다소 빠진 듯. 7월 말 현재 거래되는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9천3백원(거심), 8천원(막막) 선에 밀양산이 1만5백원(거심), 8천5백원(막막) 선에 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근당 7.8천원(거심)선 까지 하락한 지난 6월 말 시세 보다 최근 들어 다소 오른 것이다. 워낙 매기가 부진한 관계로 맥문동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백출 지난 6월 절단품으로 근당(600g기준) 1만2천원(상품), 1만5백원(중품)선이던 토백출이 7월말 현재 상품이 1만2천5백원, 중품이 1만1천원 선으로 5백원 폭 오름세나 거래 부진한 탓에 물동량은 거의 없는 편이다. 매기가 없으니 시세도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오미자 품귀.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세도 부르는 게 값.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3만2.3천원 선이다. 지난 6월초 거래되던 2만원 시세에 비하면 무려 60% 포인트 오른 셈이다. 물량도

부족하지만 이처럼 시세도 턱없이 폭등하는 바람에 국산 오미자를 찾는 경우도 거의 없어 실제 시장에서의 국산 오미자 물동량은 극소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수입 오미자는 근당 2천2.3백원 선이다. 햇것 출하가까지는 국산 오미자 상보합세 이어질 전망이다.

작약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작약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5천5백~6천원(상품) 4천5백~5천원(중품)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남산은 근당 3천5백~4천원 선에, 의성산 하품은 2천5백~3천원 선까지 색깔이나 굵기에 따라 다양하다. 식품원료용으로 반입돼온 수입산 영향으로 국산 작약 시세가 물동량에 비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최근에도 수입 작약 수백톤이 들어와 암암리에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수입 작약 시세는 근당 1천8백~2천2백원 선. 처서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햇것 출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올 생산량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큰 변동 없이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지실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6월초 시세인 1만원 보다 2천원 폭 오른 1만2천원 선에, 소지실은 1만1천원, 중지실은 7천5백원 선으로, 지난 6월초 보다 2천원, 1천5백원 폭으로 각각 올랐다. 이처럼 지실 값이 지난해 비 대폭 오른 이유는 올 햇것 출하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으로 그만큼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실 상한가는 당분간 계속될 듯.

천궁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일천궁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6월초 시세인 8천5백원 선보다 무려 3천5백원 폭이나 오른 1만2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물량이 다소 달린다고는 하나 매기가 거의 없어 거래 부진한 가운데 시세만 높게 형성돼 있어 수입산 반입 구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수입산 천궁 몇 백 톤에 달하는 물량이 이미 국내 반입, 이달 초 개최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쿼터로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대기중이란 소문도 무성하다. 토천궁은 근당(600g기준) 1만8천원(절) 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물량이 귀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 통자로는 1만7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햇것 출하가 시작될 처서 이후엔 천궁시세도 다소 빠질 전망이다.

의이인 지난 6월초 근당(600g기준) 4천 8백원 선에 거래되던 의이인이 7월말 현재 5천3백원 선에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도매거래 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재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 듯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수입산 의이인은 근당 2천2백~2천5백원 선에 거래된다.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택사 지난 6월초 근당(600g기준) 5천5백원(통), 6천원(절) 선에 거래되던 택사 값이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통으로 5천8백원, 절단해서 6천3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물량 그리 많지 않지만 거래가 부진한 탓에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하수오 올 초 수입 하수오 반입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하수오 값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하수오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8천원, 중품이 6천원 선으로 지난 6월초 시세보다 1천원 내지는 1천5백원 폭으로 오름세

를 보이고 있는 것. 이는 국내 하수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데다 반입해온 수입산 하수오 물량도 어느정도 소진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부자 최근들어 일천궁과 함께 대표적으로 폭등한 국산 한약재 중 하나. 지난 6월초 5천5백원 선이던 향부자 가격이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600g기준) 7천7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이는 무려 2천2백원 폭이나 꺾은 것으로 물동량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량 감소로 얼마전 수입 향부자가 쿼터로 반입된 바 있지만 국산보다 질이 크게 떨어져 수입보다는 국산을 더 많이 찾고 있는 관계로 국산 향부자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향부자 품귀현상은 산지도 마찬가지로여서 근당 7천5백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수입 향부자는 국산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근당 3천원 선이다. 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향부자 시세가 수입산 반입을 의식 욕심껏 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쿼터로 반입된 향부자 품질이 별경고 일이 잘아 국산과 확연히 대비되자 그때부터 조금씩 향부자 시세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전언.

황기 국산과 거의 구별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형태의 수입 황기가 몇 백톤 규모로 무한정 반입됨에 따라 국산 황기 시세는 큰 변동 없이 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소황기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통으로 1만 5백원, 절단해서 1만1천원 선에 거래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1년근 소황기의 경우 통자와 절단품이 시세차가 거의 없는 편. 국산과 비슷한 형태로 가공된 수입산이 국산과 섞여 일부 상인들에 의해 국산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름철 황기백숙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황기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은 관계로 오히려 절단품은 근당 9천5백원이면 살 수 있지만 통자는 1만5백원에도 물량이 귀하다고.

치자 지난 6월초 근당(600g기준) 2천원 선에 거래되던 치자 값이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7월말 현재 근당 1천7백원 선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량 급감으로 올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치자 값이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거래 부진한 가운데 시세도 다소 빠진 듯. (문정희)